

군 수뇌부 육군총장 역대 첫 5·18사과

남영신, 국정감사장서 “대단히 잘못” 사과 2018년 2월 국방장관 최초로 송영무 사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역대 육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 수뇌부가 잇따라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5·18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80년 5월18일 광주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된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또 “희생자분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반복보다는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다”면서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육군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이 돼주시길 더불어서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이 광주시민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육군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잇따라 사과하는 모습의 연장선상이다.

군 인사들 중 최초로 사과한 것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2월9일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군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게 충격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것에 국방장관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송 전 장관에 이어 장관직을 맡은 정경두 전 장관 역시 사과했다.

정 전 장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투입돼 광주시민을 폭력진압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18년 11월7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주석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국방차관 시절인 2018년 2월9일 과거 자신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군 내부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지목된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데 대해 “광주 시민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이행을 통해 5·18과 관련한 진상이 분명히 규명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동구, ‘동네책방’에서 만나는 문화행사 ‘다채’

광주 동구는 독서문화 확산과 동네책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마를 인문산책’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 행복한 책마를 조성사업’ 일환으로 ‘책마를 인문산책’은 책방과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작가, 문학평론가, 예술가 등을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인문강연, 북 콘서트 등 구민들이 다양한 책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자리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 방 역할과 함께 바쁜 생활 속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 올 가을엔 은행열매 약취 그만!

광주 서구가 가을철 반복되는 은행 열매 약취 민원 해결을 위해 열매채취 진동 수확기를 이용한 열매 탈기를 실시한다.

은행나무는 환경정화 효과가 탁월하고 병해충이 없으며, 가을철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아름다워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다.

현재 서구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빛나무 순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총 7,009주로 그중 열매를 맺는 압나무는 1,288주전체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은행나무 열매 약취해소를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가나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시작해 은행나무(압나무) 전체를 목표로 열매 채취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 사직동 관내 마을 협동조합 ‘들썩들썩’

광주 남구 사직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협동조합 3개를 설립해 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 협동조합의 경우 독창적인 디자인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개발에 나서 시제품 판매를 위한 KC인증 절차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직동 한 건물에서 ‘사직동 소규모 재생사업 성과 공유회’가 열렸고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소규모 재생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관계자 등 10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북구, 2020년 지역사회 장학생 153명 선발

광주 북구와 (재)광주북구장학회(이사장 박치영)는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고등학생 78명, 대학생 75명 등 153명을 선발해 고등학생 50만 원, 전문대학생 100만 원, 종합대학생 150만 원 등 총 1억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발기준은 성적우수 장학생 중 고등학생은 2020년 1학기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중 과반수 이상 과목 2등급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3.7점 이상 (4.3만점은 3.5점)이어야 한다.

저소득 장학생은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료 평균납입금이 2020년 중위소득 65% 이하의 세대이며 특히 장학생은 예술·체육 분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 성적이 있어야 한다. 특별 장학생은 각 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광산구, 쌍암공원 별밤 미술관, 이호국 초대전 개최

광산구가 17일부터 ‘별밤 미술관’ 두 번째 전시로 이호국 초대전 <선을 그 으며>를 실시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호국 작가는 광주 푸른길 풍경을 담은 ‘나들이’ 연작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일정한 방향의 고르고 반복적인 선들로 구성돼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의 이 선들은 때론 나무와 사람으로, 또 때론 배경을 이루며 작품 전체에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임형택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가거도 택배불편·관광객 뺏살 지원” 약속

취임후 첫 가거도 방문…태풍 피해 방파제 공사 점검

취임 후 처음으로 김영록 전남도 지사가 신안 가거도를 찾아 ‘택배불편 개선’ ‘관광객 뺏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7일 태풍피해를 입은 가거도를 방문해 주민과 방파제 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도지사는 “(육지에서)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국토 최서남단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2·3구 진입로 정비’ ‘택배 불편 개선’ ‘관광객 뺏살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원 해결을 위해 10억원, 5억원을 지원하고 가거도가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닥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는 “태풍 피해에도 공사를 계속 진척시켜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이용섭 “광주에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제27차 민생경제 현장으로 전자제품 부품 생산 기업인 뉴서광㈜(대표 이상섭)을 찾아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운영 애로 사항을 청취 했다.

뉴서광㈜는 지난해 5월 광주시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후 올해 1월 장성에서 광주 하남산단으로 이전했다. 방장고, 에어러 등 생활가전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연매출 820억원의 유망 중소기업이다.

특히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삼성전자 해외공장 철수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관내 우수기업을 광주시에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9

기 명품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1공장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으며, 2공장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이다.

광주시는 2공장이 완공되면 150여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발전소 동일사항

1.발전설비용량 : 99.45kw	2.사업개시예정일 : 2021.06	3.사업운영기간 : 2021.06~2046.05(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0.10.16.~2020.10.26.까지 전남 목포시 미향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 ilyang00@daum.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발전소명	6.발전사업신청자	7.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영남 태양광발전소	유영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46㎡/9,000㎡)	
2 문수2호 태양광발전소	허순환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418㎡/9,000㎡)	
3 재환 태양광발전소	이재환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26㎡/9,000㎡)	
4 문수1호 태양광발전소	김종현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46㎡/9,000㎡)	
5 금최2호 태양광발전소	박금희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82㎡/9,000㎡)	
6 사남2호 태양광발전소	최사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314㎡/9,000㎡)	
7 화영2호 태양광발전소	유영성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314㎡/9,000㎡)	
8 화영1호 태양광발전소	함미경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102㎡/9,000㎡)	
9 현주 태양광발전소	송현주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615-2(917㎡/9,88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어가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원칙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국민 이해·복합에서 제언한 슬로건입니다.

“호남신문과 함께할 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곡성·해남

문의전화 (062)229-60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칙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